한국제조업의
위기징후와 정책제언

2014. 7. 29

대한상공회의소

1. 한국제조업의 위기징후 진단

2.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방향

3.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

1. 새로운 패러다임 대응에 후미로 뒤쳐지고 있다

파괴적 기술진보 상시화시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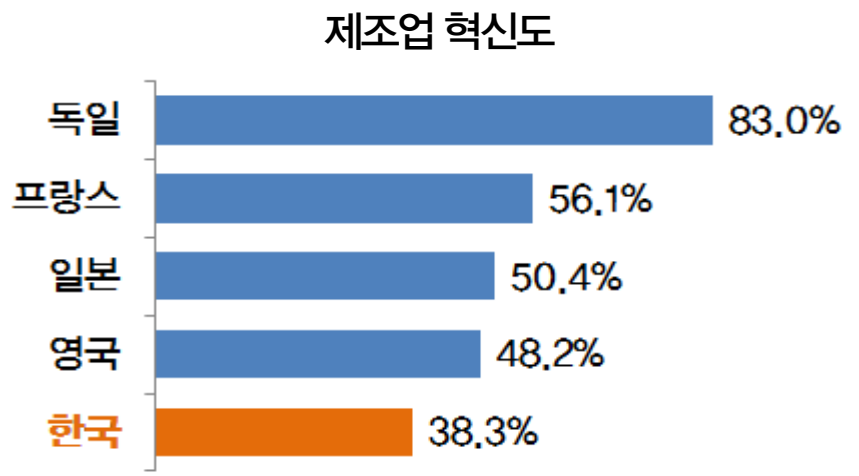
- 스마트폰 ⇨ ~~집전화/카메라/MP3/내비~~
- 3D프린터 ⇨ ~~공장/생산공정/근로자~~
- 사물인터넷시대 임박
  무인자동차/항공기/인공지능로봇

경쟁원천 : 제조역량 → 혁신역량

- 현재의 핵심역량 지속여부 불투명
- 사업기회 선점여부가 기업미래 좌우

한국제조업 = 미래불안

- 경쟁국에 비해 혁신노력 미흡
  – 제조업혁신도: 日의 76%, 獨의 46%
- 혁신하고 싶어도 방법 모르고
  혁신역량도 부족



* 제조업 혁신도(%) : 혁신업체/제조업체
* 자료 : OECD

2. 新샌드위치 위기 속에 국내경영여건조차 악화 중이다

선진국 : 제조업 부흥

- 미국 : Remaking America
- 독일 : Industry 4.0
- 일본 : 산업재흥플랜

역습

한국제조업
(新샌드위치 위기)

도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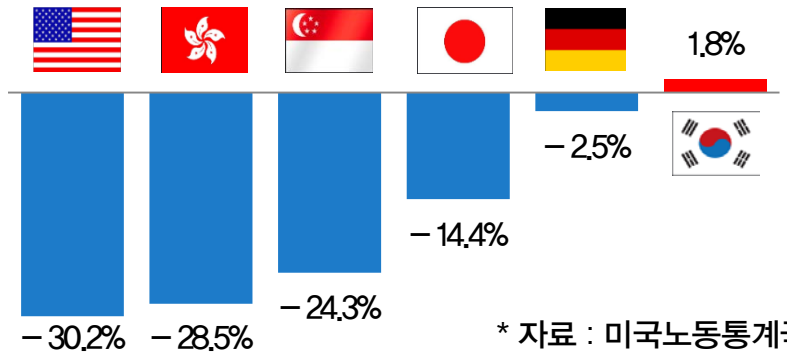
신흥국 : 산업구조 고도화

- 중국 : 自主創新(기술고도화,미래투자)
- 아세안 : 제2의 중국 지향
- 중동 : 오일수출 –〉 석유화학투자 등

국내제조업 경영여건 = 악화

- 각종규제 여전(입지, 노동, 환경 등)
- 기업부담규제 신설
  - 화평법, 화관법, 환구법 등
  - 통상임금, 정년연장, 근로시간단축
- 노사협력관계: 132위/148국(WEF)
- 단위노동비용: 경쟁국 하락, 한국 상승

최근 10년간 단위노동비용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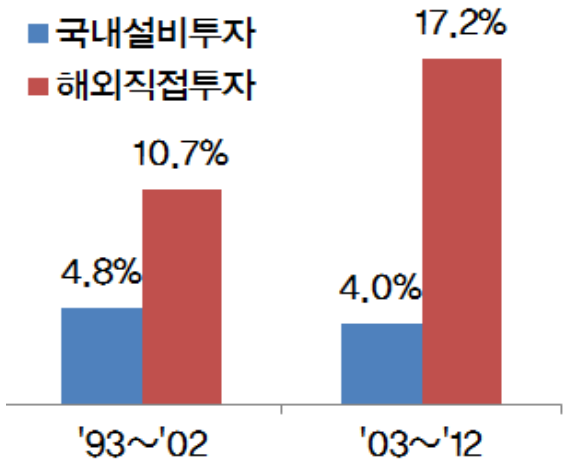


* 자료 : 미국노동통계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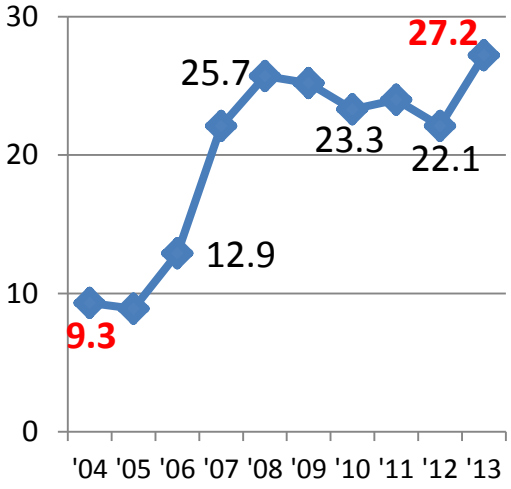
3.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된다

- **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중 지속확대**
  - 10년간 해외설비투자, 국내대비 4배 속도로 증가 : 국내 4.0% vs. 해외 17.2% (연평균증가율 기준)
  - 10년간 해외설비투자/국내설비투자 비율, 3배 증가 : 9.3%('04) → 27.2%('13)
- **제조업 공동화 막을 골든타임, 길어야 3년**
  - 오피니언리더 : 현재 공동화 진행중 42.4%, 3년후부터 시작 33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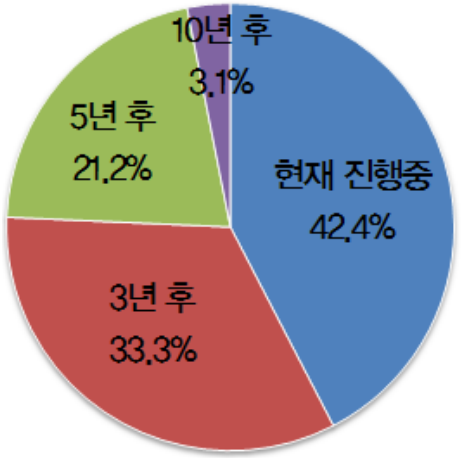
설비투자증가율



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(%)



제조업 공동화 시작시기



*자료 : 오피니언리더 46인 대상 조사
(대한상의, '14.7)

4. 국제경쟁력과 사회기여도가 약화되고 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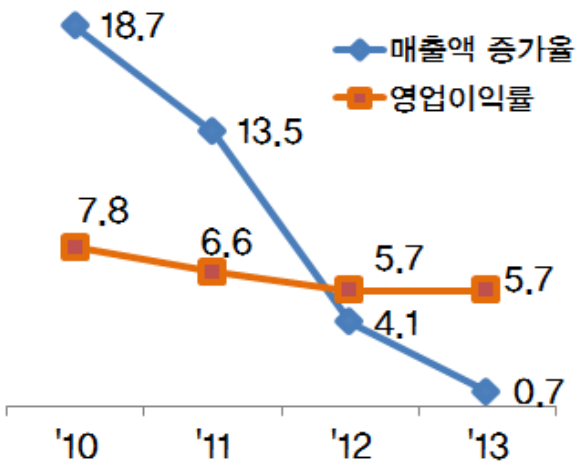
- **한국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지속하락**
  - 제조업경쟁력 순위(美경쟁력委) : 3위('10) → 5위('13) → 6위('18)
- **제조업계 실적악화 및 고용창출효과 약화**
  - 지난 4년간 매출증가율 18.7%('10) → 0.7%('13), 영업이익률 7.8% → 5.7%
  - 제조업의 고용비중 : 27.2%('90) → 20.3%('00) → 16.9%('10) → 16.7%('13)

제조업경쟁력 순위

순위	'10	'13	'18
1	중국	중국	중국
2	인도	독일	인도
3	한국	미국	브라질
4	미국	인도	독일
5	브라질	한국	미국
6	일본	대만	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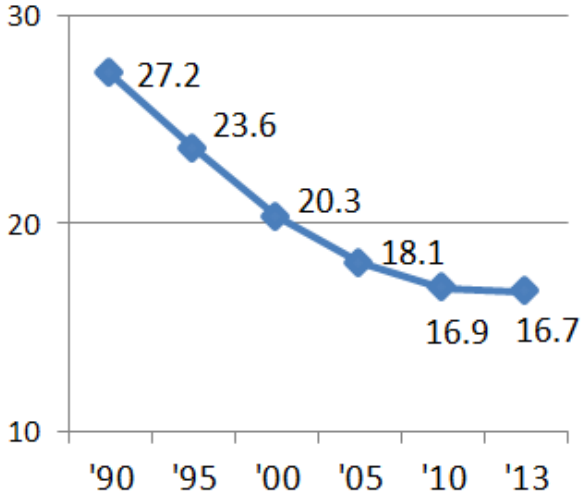
*자료 : 美경쟁력위&딜로이트

제조업 실적(%)



*자료 : 한은

제조업의 고용 비중 (%)



*자료 : 통계청

1. 한국제조업의 위기징후 진단

2.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방향

3.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

1. 선진화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

	기 존	선진화
정신	▪ 기업생존/단기실적 위주	· 경제재도약 주도 소명감
	▪ 과거성공경험/방식 답습	· 시대대응/미래지향 변화
문화	▪ 상명하복풍토	· 수평적 창의적 기업문화
	▪ 부문간 칸막이	· 소통과 협업 활성화
	▪ 연공서열주의	· 성과연계형 평가보상
운영	▪ CEO 중심 운영	· CEO–구성원 비전공유
		· 회사책임질 핵심인재 양성
		· 시스템에 의한 기업운영

2. 향후 3년간 제조업 혁신에 몰입하겠습니다

1 사업

시대변화에 부응해 사업재정의 및 구조재편

- 사업분야별 미래적합도 점검
- 부적합분야 철수
- 신사업기회 포착.진출

2 핵심역량

핵심역량 강화

- ICT 융합, 신기술 활용
- 제조-서비스 융합
- 핵심기술보유기업 M&A

3 혁신

혁신투자

- 미래기술 선점
- R&D 및 디자인 등 투자
- 선제적 설비투자

4 네트워크

네트워크 경쟁력 강화

- 산학연 협력
- 협력사 기술개발
- 전략적 제휴

3. 금년도 투자계획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습니다

● 투자계획 차질없이 집행

* 600대 기업 133조 투자

구분	2012년	2013년	2014년
시설투자	96조	97조(1.3% ↑)	103조(5.9% ↑)
R&D투자	23조	28조(19.5% ↑)	30조(6.9% ↑)
투자총액	119조	125조(4.9% ↑)	133조(6.1% 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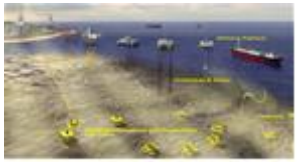
● 미래성장동력 적극투자

*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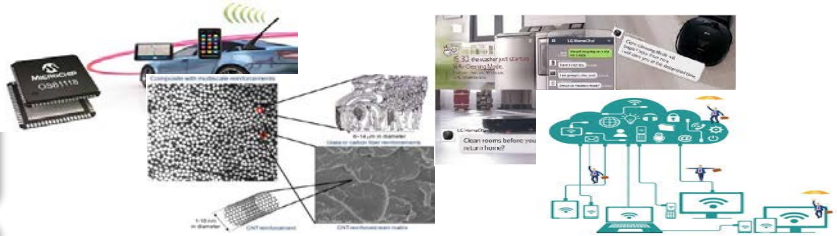
주력산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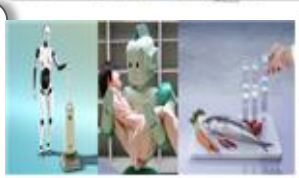




기반산업



미래산업







공공복지







1. 한국제조업의 위기징후 진단

2.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방향

✓ **3.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**

1. 투자/혁신관련 제도적 장애의 맞춤형 해결이 필요합니다

투자 장애
- 공장설립/개발제한규제
- 인허가 행태 및 소요기간
- 신산업 인프라 미비

혁신 장애
- 개발단계: 규제의 불확실성
- 출시단계: 기존규제 부적합
- 혁신제품 인증기준 지연

사업 재편 장애
- 상법(합병/분할절차 등)
- 공정거래법(공동대응=담합추정)
- 세법(양도세.취득세 등)
- 노동법(노조동의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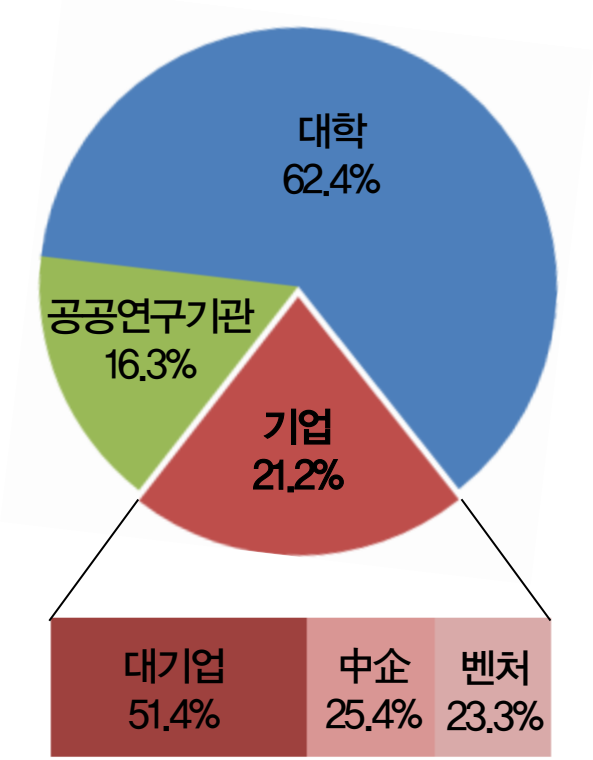
경쟁국보다
과감하게 정책대응

〈참고〉 일본의 사례
- 법률: 산업경쟁력강화법(舊산업활력법)
- 목적: 신사업, 사업구조재편 원활화
- 지원: 규제불확실성(그레이존) 해소, 맞춤형 지원/규제개혁(기업특구)
- 조건: 생산성향상, 재무구조개선 등
- 성과: 도요타, 일본제철 등 구조개편(105개사), 기업은 생산성 향상, 신규고용 창출

2. 부족한 혁신역량을 강화할 지원이 필요합니다

산학연 협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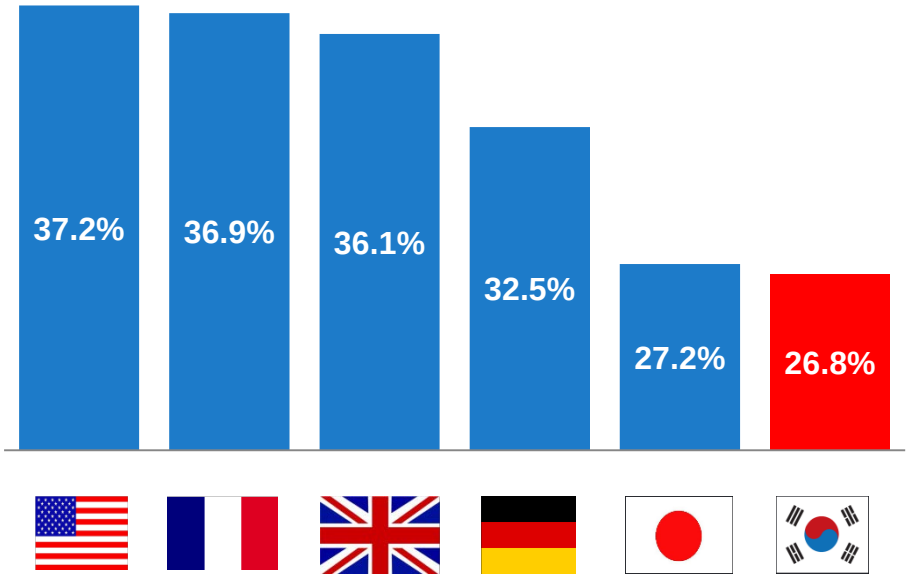
이공계 석박사 인력분포



* 자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
제조업 지원서비스산업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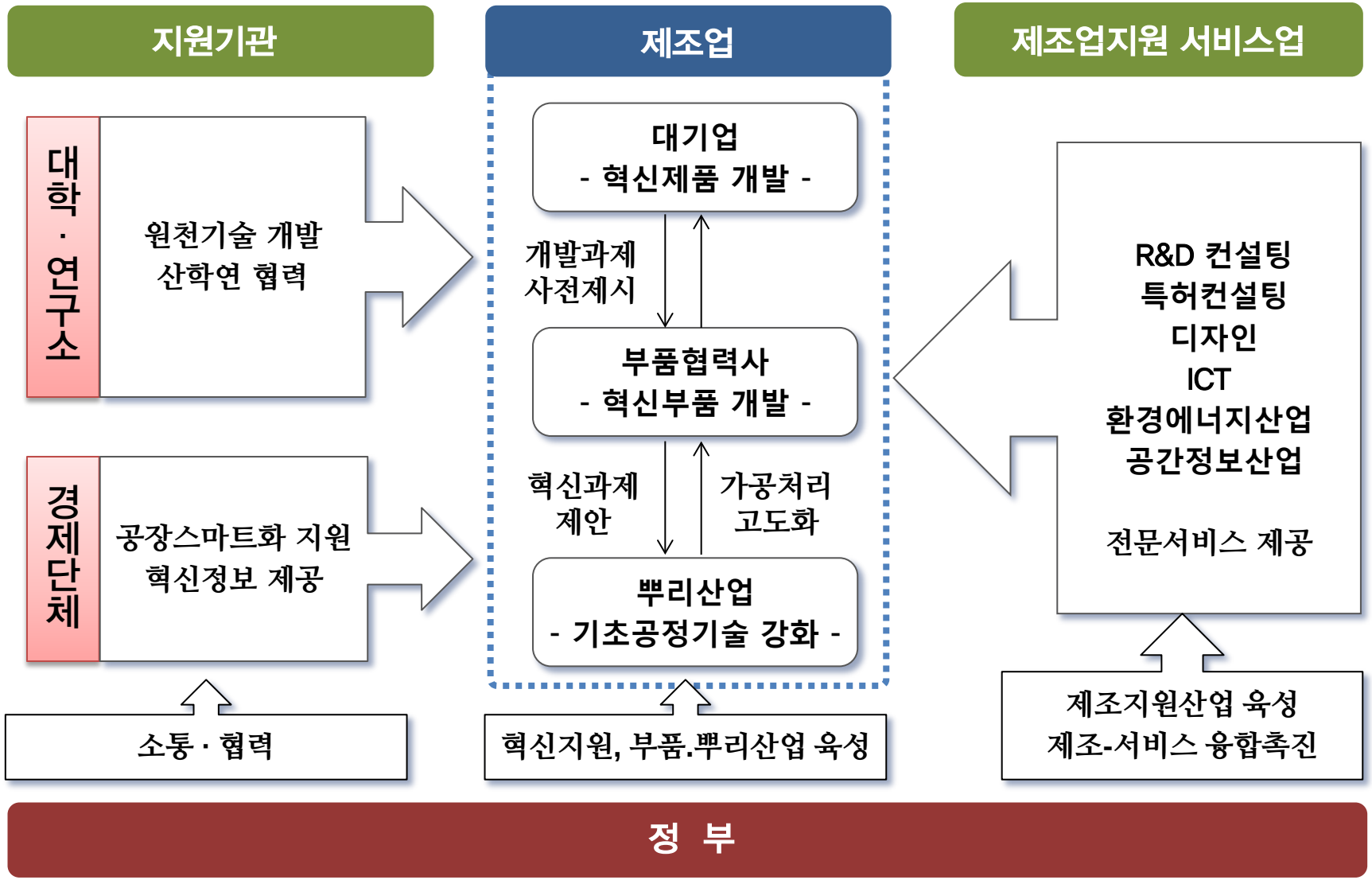
지식서비스산업의 GDP 비중



* 자료 : OECD

- 주요국, 통섭형 인재 양성
  - 미국 미주리대 빅데이터분석센터
  - 싱가폴국립대 비즈니스분석센터 등 운영

3. 제조혁신의 팀플레이와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



4. 제조업 경영여건의 경쟁국 수준 개선이 필요합니다

구분	한국	경쟁국
규제	• 규제강도 4위 (OECD 33개국 중, 2013) • 경제자유도 31위(美헤리티지, 2014)	• 日(9위), 佛(16위), 獨(30위), 英(32위), 美(33위) • 홍콩(1위), 싱가폴(2위), 美(12위), 英(14위), 獨(18위), 日(25위)
인재	• 창의적 인재부족(지식 중심의 주입식 교육) • 중소기업 미스매칭(빈 일자리 20만개)	• 선진국 창의성 교육(맥락이해/문제해결 역량배양) • 선진국 교육-산업 연계시스템 확립 (美 산학공동 제조혁신기관, 獨 직업학교)
인력운용	• 정규직 보호수준 11위(OECD 34개국 중) •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/ 파견직 32개만 허용 •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, 직장점거 허용	• 미국 34위, 일본 31위, 독일 3위 • 美.日 無제한, 獨 노사합의 / 美 無제한, 日.獨 예외제한 • 美.日.獨 대체근로 허용, 직장점거 금지
환경부담	• 저탄소차협력금 도입예정 • 배출권거래제 시행예정	• 美.日.獨.中 미시행(佛 등 일부국만 시행) • 美.日.中은 국가단위 도입 연기. 철회 / 濠 폐지법안 하원통과